

新羅王陵 關係記事 檢討(2)*

- 사료의 성격구명을 중심으로 -

李 根 直**

목 차

- I. 머리말
- II.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장지관련 기사 검토
 - 1. 장지관련 기사의 특징
 - 2. 신라능묘관련 기사의 성격
 - 3. 왕력과 신라본기 비교검토
- III. 맺음말

< 요약 >

본고는 『三國史記』新羅本紀와 『三國遺事』王曆 및 紀異篇에 전하는 新羅 陵墓關聯 記事들의 사료적 성격을 살펴 본 것이다. 그 결과 『삼국사기』 신라본기의 표기방법은 당대의 장례절차를 의식하면서 기록한 것으로서 1차 자료적 성격을 띠고 있었으며, 삼국유사 기이편은 왕릉이 조성된 후 일정기간이 지난 뒤 왕릉을 답사한 자에 의한 기록으로 2차 자료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 왕력은 두 가지 방법을 혼용하고 있었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는 신라본기의 관련기사가 『삼국유사』의 왕력과 기이편의 경우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사료적 가치가 높을 것으로 생각되나 그렇지 않았다. 또한 신라본기와 왕력 그리고 기이편은 편찬과정에서 서로 다른 계통의 사료들을 底本으로 한 결과 같은 왕릉에 대해서도 일견 동일한 기록으로 생각되나 결과적으로는 다른 기사를 남기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경명왕릉을 예로 하여, 왕력과 신라본기를 구체적으로 비교 검토한 결과 신라본기보다는 오히려 왕력의 사료적 가치가 높음을 증명하였다. 따라서 어느 특정 자료를 선택하고 나머지 관련자료는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일방적인 판단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과 능묘관련 기사들은 현장조사를 통한 엄정한 사료비판을 거쳐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즉, 능묘 발달과정 및 능묘주변 유적에 대한 고고학적 이해와 더불어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편찬과정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 이 논문은 2001~2002년 BK21 사업의 지원에 의해 쓰여졌음.

** 영남대 문화인류학과 박사과정

I. 머리말

신라왕릉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문헌자료에는 『삼국사기』 신라본기(1145년)와 『삼국유사』의 왕력 및 기이편(13세기말~14세기초)¹⁾이 있다. 두 문헌은 모두 신라가 고려로 귀속된 935년 이후 210년에서 400년 정도의 격차를 두고 편찬되었다. 다시 말해 문헌자료로 국한한다면, 우리는 불행하게도 신라인들이 직접 목격한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1차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하며, 고려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에 의해 수집되고 재편집되어 남겨진 2차 또는 3차 자료를 갖고 있는 셈이다. 이 점은 문헌의 성격상 당대의 자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료적 가치가 떨어지는 단점을 피할 수 없다. 따라서 사료비판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비록 『삼국사기』와 『삼국유사』가 한국의 고대사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기본 사서임에는 분명하나 그 자체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자료가 아니라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것은 사료의 傳承 및 轉寫過程 또는 후대인들에 의해 전대의 사건이 채록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인간의 속성인 편견과 국가 또는 편찬자의 정치사회적 이해관계가 의도적으로 반영되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역사적 사실에 대해 당대의 인식체계가 아닌 편찬자의 사유체계에 지나간 과거의 사건을 이해하고 기술하려는 경향까지 포함된다. 그 결과는 가능한 한 사실에 맞게 진실을 보고하기 위해서 작성될 수도 있지만, 편찬자의 주관에 의해 편집되는 만큼 편파적·일방적·제한적일 수도 있다²⁾. 사실 이러한 성격의 편향된 기술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기록 곳곳에 남아 있다. 따라서 신라왕릉 연구는 관련사료를 경주지역에 남아 있는 전창왕릉에 적용함에 앞서 관련 문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개별 사료에 대한 비판이 선행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그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삼국사기』 신라본기와 『삼국유사』의 왕력 및 기이편에 남아 있는 신라 56왕에 대한 葬法과 葬地에 관한 기록들이 서로 일치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한 설명이다. 둘째, 두 문헌에서 확인되는 장지 또는 능묘위치 관련 기사와 傳稱陵墓가 일치하는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고고학에서 연구된 바의 각 시기별 능묘제도 발달과정을 벗어나 전혀 다른 묘제를 보이고 있는 일부 능묘들에 대한 원인 규명이다.

1) 이근직, 1998, 「삼국유사 왕력의 편찬성격과 시기」, 『한국사연구』 101집, 한국사연구회

2) 이상신, 1994, 『역사학개론』, 신서원, 67쪽

그 가운데 본고는 전자에 국한된 것으로,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편찬과정과 저본 자료들의 계통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신라 능묘관련 기사 가운데 某王에 대한 葬地·葬法관련 기록이 각기 다를 경우 이를 비교·검토할 것이다. 그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완전하지는 않지만 과연 일방적으로 특정한 문헌자료를 취하고 나머지 자료들은 버릴 수 있는지, 기록은 서로 다르지만 상호 보완되는 성격의 자료인지 또는 문헌에 관계없이 각 사료마다 개별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그 결과는 두 문헌에 기록된 왕릉관련 기사의 구조적 결함을 밝히는데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II.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장지관련 기사 검토

1. 장지관련 기사의 특징

삼국 및 금관가야의 왕과 왕족 그리고 신하들이 선택한 장법과 능묘의 위치에 관한 기사는 『삼국사기』의 각국 본기 및 『삼국유사』의 왕력과 기이편 등에 각각 시기를 달리하면서 남아 있다. 먼저 고구려 능묘의 존재에 대해서는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에 다수의 관련사료가 확인되고 있으나, 『삼국유사』의 왕력과 기이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백제의 경우 무령왕릉과 같은 왕릉을 조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삼국사기』 백제본기는 물론 『삼국유사』 왕력과 기이편에서도 능묘관련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 신라는 『삼국사기』 신라본기와 『삼국유사』 왕력 및 기이편 에서 모두 확인된다. 가야는 금관가야의 수로왕 및 허황후의 능에 한해서 『삼국유사』 기이편 가락국기조에서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삼국사기』는 고구려 및 신라에 대해서만 능묘관련기록이 있으며, 『삼국유사』 왕력은 신라 왕들에 대해서만, 기이편은 신라왕과 가락국 시조 및 비인 허황후에 한해서만 장법과 왕릉의 위치를 알려주는 기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고구려의 경우는 28왕 가운데 17왕에 대한 장지 기록이 확인되며, 제6대 태조대왕과 제7대 차대왕 그리고 제19대 광개토왕으로부터 제27대 영류왕에 이르는 11왕의 장지에 대한 기록은 없다. 제28대 보장왕 경우는 백제 의자왕과 마찬가지로 중국측 기록을 인용하고 있다. 이외에도 왕족과 軍功者 등 5명에 대한 장지관련 기록이 남아 있다. 백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왕릉이 조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특이하게도 『舊唐書』와 『新唐書』의 기록을 참고한 뒤 이를

전재한 제30대 의자왕의 경우를 제외하면 능묘관련 기록이 전무한 상태다. 그런데 신라의 경우 『삼국사기』 신라본기는 34왕에 대한 장법 및 장지관련 기록을, 『삼국유사』 왕력은 17왕에 대한 장법과 능의 위치, 기이편은 7왕의 장법과 능의 위치 및 김유신묘의 위치에 관한 기록을 남기고 있다. 이외에도 신라는 왕족 및 신하의 장지에 관한 기록을 다수 남기고 있다.³⁾ 그 결과 신라는 『삼국사기』 신라본기와 『삼국유사』의 왕력 및 기이편에 적지 않은 관련자료를 갖고 있어, 고구려·백제·가야에 비해 장법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경주지역의 전칭능묘와 왕릉급 고분들에 대한 피장자 추정이 용이한 편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신라에 국한하여 많은 자료가 전승되고 있는 까닭은 전쟁을 통하여 멸망한 고구려·백제·가야와는 달리 통일기에 이르러 전승국의 입장과 강화된 中代王權에 의해 古新羅期の 자료를 새로이 정리할 기회가 있었고⁴⁾, 935년 이후에는 고려정부에 의해 관련 문헌자료들이 그대로 보존될 수 있었다는 점 때문이다. 즉, 신라가 고려에 항복과 동시에 納土하는 형식을 취한 까닭에 官撰書와 더불어 사사로이 民間에 전승되어 오던 자료들조차 온전히 보존될 수 있었다.

이에 비해 고구려는 고구려본기를 참고할 경우 태조대왕과 차대왕의 관련기록이 확인되지 않지만 제18대 고국양왕까지는 장지를 기록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다만 제19대 광개토왕 이후부터는 장지관련 기록을 남기지 않아 그 이전과 구별된다.⁵⁾ 따라서 고구려의 경우 장지관련 기록에 국한하여 본다면 5세기 전반기부터 고구려인들의 인식에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백제의 경우 장지관련 기록이 비록 확인되지는 않으나 무령왕릉의 존재에서 알 수 있듯이 왕릉을 조영한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왕릉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백제인들은 장지관련 기록에는 관심을 갖지 않은 것 같다.⁶⁾

마지막으로 6가야 가운데 금관가야만 왕릉관련 기록이 있는데, 『삼국유사』 기이편 가락국기

3) 이근직, 2000, 「신라능묘의 전승과정연구」, 『경북사학』 23집, 경북사학회, 601~606쪽

4) 이기동, 1981, 「고대 국가의 역사인식」, 『한국사론』 6, 국사편찬위원회, 13쪽

5) 趙仁成, 1980, 「慕本人 杜魯 - 高句麗의 殉葬과 守墓制에 관한 一檢討 -」, 『歷史學報』 제87집, 역사학회 ; 魏存成, 1996, 「집안 고구려왕릉 연구」, 『고구려연구』2집, 학연문화사

6) 일반적으로 백제본기의 관련 기사가 부족한 원인을 패망국의 입장에서 찾고 있다(이남석, 2002, 『백제묘제의 연구』, 서경, 212쪽). 그러나 고구려 역시 패망국인 까닭에 백제와 마찬가지로 자료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장지관련 기사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백제본기에서 장지관련 기사가 확인되지 않음은 백제인들의 의식세계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며, 결코 통일신라 혹은 고려시기에 이르러 구삼국사 및 삼국사기 편찬과정에서 이를 고의적으로 누락시켰다고 보기는 어렵다.

조에 등장하는 수로왕과 허황후의 능에 대한 기록을 문무왕대의 상황으로 이해하는 견해가 있다. 즉, 수로왕과 허황후의 능이 마련되는 서기 2세기경 김해지역에는 수로왕릉과 같은 高塚古墳이 성립되지 않고 있음에 주목하여, 신라의 문무왕이 삼국을 통일한 후 가야출신의 母后인 文明王后를 위하여 7세기 중엽 신라에서 성행하던 墓制와 같이 改葬한 후 크게 성토를 하고 사당을 보수하였을 것으로 추정하였다⁷⁾.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2세기경 목관묘단계의 수로왕릉이 7세기중엽에 이르기까지 500여년동안 후손들에 의해 전승되는 것이 가능한지를 나머지 금관가야 왕릉의 경우와 비교를 통해서 논리적으로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임진왜란 당시 수로왕릉이 왜구에 의해 도굴되었을 때 확인된 묘제는 ‘壙中甚闊’이라는⁸⁾ 표현으로 미루어 석실분으로 추정되는데, 문무왕대인 7세기중엽의 수로왕릉은 목관묘여서 봉분 또한 많이 내려앉아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위에 그대로 성토를 하지 않고 완전히 개조하여 7세기의 신라왕릉 양식인 횡혈식석실분으로⁹⁾ 하는 것이 가능하였을까와 같은 많은 의문점이 있다. 결국 이러한 추정은 고대인들 역시 오늘날과 같이 선대의 묘역에 대해 확장을 하거나 묘제의 개조를 빈번하게 하였을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는데 고고학적으로 증명되지 않고 있다.

어쨌든 위 견해를 받아들여더라도 가락국기조의 왕릉관련기사는 목관묘단계의 봉분을 설명한 것이 아니라 이미 고층화된 왕릉을 기록하고 있으므로¹⁰⁾ 금관가야에 의한 기록이 아닌 통일신라시대 이후의 어느 시기에 채록된 것이 분명하다¹¹⁾. 따라서 금관가야인에 의한 왕릉관련 기록은 없음이 확인된다. 나아가 ‘가락국기’ 조가 편찬되던 고려 문종대(1046~1083)에 이르러 수로왕과 허황후를 제외한 다른 왕릉들의 존재는 이미 전승과정을 잃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7) 김태식, 1999, 「김해 수로왕릉과 허황후릉의 보수과정 검토」, 『한국사론』41·42합집, 서울대 국사학과, 39쪽과 43쪽

8) 李暉光, 1614, 『芝峰類說』 권19 宮室部

9) 김태식, 2002, 『미완의 문명 7백년 가야사』3권, 푸른역사, 43쪽

10) 김태식, 1999, 「김해 수로왕릉과 허황후릉의 보수과정 검토」, 『한국사론』41·42합집, 서울대 국사학과, 39쪽

11) 이 점은 『삼국유사』의 ‘가락국기’가 2세기대의 역사적 사실에 기초한 것이 아니며, 후대의 필요에 의해 작성된 기록임을 증명하고 있다. 때문에 시조왕과 왕비의 능에 관한 기록에만 관심이 있으며, 다른 9왕의 능에 대해서는 기록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 즉 시조인 수로왕과 그의 비였던 허황옥의 능만이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또한 이점은 공교롭게도 신라의 경우와 일치하고 있는데, 법흥왕 이전의 22왕에 대해 『삼국사기』 신라본기는 三姓의 시조왕인 혁거세왕·탈해왕·미추왕에 대해서만 장지관련 기록을 남기고 있어 주목된다(이근직, 1986, 「신라왕릉관계 기사의 검토」(삼국사기 초기기록을 중심으로), 『경주사학』5집, 동국대 국사학과). 따라서 어느 시기인지 분명히 할 수는 없지만 통일신라에 이르러 각 성의 시조가 매우 중요한 정치적·사회적 의미를 갖기 시작하였음을 알게 한다.

1. 신라능묘관련 기사의 성격

신라 능묘제도에 관한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작업은 우선 전칭능묘에 대한 피장자의 진위를 규명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련 문헌인 『삼국사기』 신라본기와 『삼국유사』 왕력 및 기이편의 능묘관련 기록들을 정리한 뒤 경주지역에 남아 있는 전칭능묘들을 중심으로 개별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관련 문헌에서조차 사후에 진행된 葬法 및 능묘의 위치관련 기록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그런 까닭에 각각의 능묘에 대한 피장자를 추정하는 작업에 앞서 선행작업을 통해 문제시되는 다수의 능묘관련 기사 가운데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부터 판단하여야 한다.

하지만 관련 기사에 대한 비판은 문헌의 검토만으로는 불가능하며 경주지역 전칭능묘와 고분들에 대한 조사 및 이해를 전제로 할 경우에만 가능하다. 즉 문헌의 관련 기사와 능묘 및 인근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寺址와 같은 유적상황에 대한 공간적 이해 그리고 능묘의 시기별 형식변화과정과 같은 고고학적 이해를 기초로 하여 동시에 입체적으로 조명해야 한다. 예컨대, 장법관련 기록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신라 하대 네 명의 왕에 대해 『삼국사기』 신라본기의 기록이 의미하는 것처럼 왕릉을 조영한 후 석실내에 시신을 안치하였는지, 『삼국유사』 왕력의 기록처럼 화장 후 散骨 또는 藏骨하였는지에 대한 판단은 경주지역의 전칭왕릉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접근할 경우에만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삼국사기』 신라본기와 『삼국유사』의 왕력 및 기이편에 전해오는 신라 능묘관련 기사를 통해 이들 문헌자료의 성격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1) 『삼국사기』 신라본기

『삼국사기』 신라본기에는 시조인 혁거세왕과 제2대 남해왕, 제3대 유리왕, 제5대 파사왕인 박씨 4왕과 석씨 시조인 제4대 탈해왕, 그리고 김씨시조인 제13대 미추왕 그리고 법흥왕 이후의 제왕들에 대한 葬地관련 기록이 확인된다. 즉, 상고기의 22왕 가운데 앞의 6왕만 관련기록이 있으며, 나머지 18왕은 관련 기사가 없는 실정이다. 중고기와 통일기에도 제36대 혜공왕과 제40대 애장왕처럼 시해를 당한 경우와 정상적인 왕위계승 절차를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제39대 소성왕과 제48대 경문왕은 장지관련 기록이 없다.

이러한 장지관련 기사의 표면적 특징은 신라의 정치 및 사회의 변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즉, 왕릉이 조영되었다 하더라도 뒤를 이은 왕의 정치적 상황에 의해 기록의 유무가 결정되곤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장지관련 기록이 비록 남아 있지 않다 하더라도 경주일원에 존재하고 왕릉 또는 왕릉급 고분들에 대한 호석 형식의 변천과정을 고려한다면¹²⁾ 추가로 찾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우선 신라본기의 능묘관련 기사에 한정해서 살펴볼 경우 다음과 같은 특징이 확인된다.

첫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고기 22왕 가운데 왜 하필이면 3성의 시조에 국한하여 장지관련 기록이 남아 있을까 하는 점이다. 그리고 이에 해당하는 왕릉에 대해서는 이미 구체적으로 검토된 바 있는데, 上古期 장지관련 기사는 이미 밝혀진 고고학계의 연구결과를 고려할 때 사실과는 달리 변형된 내용으로 남아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 점은 3성의 시조릉에 대한 인식이 어느 특정한 시기에 이르면 법흥왕 이전의 다른 왕릉과 달리 사회적으로 중요해졌음을 의미하며, 따라서 역사적 사실과 달리 후대의 사회적 필요성에 의해 새로이 지정되어 모셔지고 있음을 보여준다.¹³⁾

그러므로 만일 처음부터 왕의 장지관련 내용이나 왕릉의 소재지에 대한 기록이 사관에 의해 일괄적으로 기록되는 원칙이 지켜졌다면 이러한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다. 즉, 상고기의 경우 왕의 장지는 기록되지 않았는데 후대의 어느 시기에 이르면 3성의 시조릉에 대해서 기록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3성의 시조릉에 관한 기사는 신라사회에 있어서 姓氏의 분화과정에서 새롭게 요구된 시대적 요청에 의해 追記된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중고기 왕들의 장지관련 기사는 대체로 통일기의 상황이 소급되어 기록된 것으로 추정된다. 예컨대, 법흥왕과 진흥왕의 장지는 哀公寺, 진지왕과 무열왕의 장지는 永敬寺를 기준으로 표시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즉, 애공사는 법흥왕과 진흥왕대에, 영경사는 진지왕 또는 무열왕대에 창건된 사찰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신라본기를 참고할 경우, 선덕여왕대까지 왕실에서 창건한 사찰은 흥륜사·영흥사·황룡사·기원사·실제사·분황사·영묘사 등이다. 여기에 두 사찰의 사명은 거론되지 않았다. 특히 애공사와 영경사는 왕족의 원찰로 추정되지만

12) 齋藤忠, 1973, 「新羅王陵傳稱名に關する考古學上の一考察」, 『新羅文化論考』, 吉川弘文館

13) 현재 고고학계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기원 전후한 시기부터 4세기 중엽에 이르는 기간동안 경주지역의 묘제는 토광묘단계이다(최병현, 1992, 『신라고분연구』, 일지사, 37~100쪽). 이 시기는 적석목곽분 이전 단계로 봉토의 규모는 소형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혁거세릉을 포함한 오릉과 미추왕릉은 적석목곽분으로 대형분에 해당한다. 그리고 탈해왕릉은 6세기 이후부터 등장하는 석실분이다. 이에 대한 문헌적 검토는 다음의 글이 참고가 된다.(이근직, 1986, 「신라 왕릉관계 기사의 검토」(삼국사기 초기기록을 중심으로), 『경주사학』5집, 동국대 국사학회)

신라본기와 『삼국유사』 등에 창건관련 기록이 없다. 따라서 진흥왕 5년(544)에 창건되는 흥륜사가 신라 최초의 가람인 점을 고려하면, 이보다 앞선 법흥왕의 장지관련 기록에 애공사가 등장하는 것은 후대에 추가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같은 예로 諡號制度的 경우 태종무열왕부터 시행된 것이 분명함에도¹⁴⁾ 불구하고 신라본기는 마치 지증왕대부터 시호제도가 실시된 것처럼 기록되어 있다¹⁵⁾. 따라서 시호제도와 더불어 왕의 장지관련 기사는 통일기의 상황이 중고기로 소급 적용된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셋째, 경덕왕의 경우 신라본기에서는 장지를 '모지사 서쪽 언덕'으로 되어 있으나, 왕력에서는 처음 '모지사 서쪽 언덕'에 장례를 지낸 후 다시 '양장곡'으로 이장한 것으로 되어 있다. 즉 신라본기를 따르면 경덕왕릉은 모지사 서쪽 언덕에서, 왕력을 따를 경우 모지사 서쪽 언덕이 아닌 전혀 다른 장소인 양장곡에서 찾아야 된다. 그런데 두 기록 모두 나름대로 역사적 상황을 기록하고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하므로 일방적으로 한 쪽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해석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더라도 왕릉의 위치를 찾는 문제에서는 두 기록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야 된다. 따라서 왕릉의 위치문제에 국한할 경우 두 기록은 양립할 수 없다. 또한 원성왕의 경우는 신라본기에 의하면 봉덕사에서 화장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삼국유사』 왕력·기이편 그리고 최치원이 찬한 승복사비문에서는 토함산 서쪽에 왕릉이 조영된 것으로 관련 기록을 남기고 있다. 따라서 만일 후자의 기록이 없었다면 연구자들은 화장 후 산골한 것처럼 기록한 신라본기에 의거하여 왕릉의 존재를 부정하게 될 것이다.

넷째, 신라 하대의 네 왕인 진성왕·효공왕·신덕왕·경명왕에 대해서 신라본기는 모두 왕릉을 조영한 후 매장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으나 왕력에서는 모두 화장한 후 왕릉 조영 또는 산골한 것으로 되어 있다. 즉 장법에서 서로 다르게 기록되었음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삼국사기』 신라본기는 상고기와 중고기 그리고 중대와 하대에 이르는 전 기간에 걸쳐 장지 및 장법과 관련된 기록방법에서 각 시기별로 문제가 있거나 또는 검토의 대상이 되는 왕릉 관계 기사가 적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삼국유사』 왕력

왕력에서는 17왕에 대한 葬法의 종류와 장지 또는 왕릉의 위치가 확인되고 있다. 이를 다시

14) 김정희, 「眞興二碑攷」, 『완당전집』 권제1(민족문화추진위원회편, 1995, 『국역완당전집』①, 도서출판 솔, 30쪽) : 박홍갑, 2001, 「조선시대의 시호제도」, 『한국중세사회의 제문제』(김윤곤교수정년기념논총), 한국중세사학회, 379쪽

15) 秋九月…王薨 諡曰智證 新羅諡法 始於此(『삼국사기』 신라본기 지증왕 15년조)

세분하면, 화장을 행한 장소와 화장 후 散骨 또는 藏骨한 장소를 기록한 경우는 7왕이며, 왕릉을 조영한 후 매장을 선택한 경우는 10왕이다. 그런데 기록형태를 보면 두 가지 양상이 확인된다. 먼저 왕의 장례 직후 기록된 경우는 『삼국사기』 신라본기의 법흥왕처럼 ‘葬’ + 哀公寺 + 北峯으로 寺刹 또는 地名을 먼저 기록하고, 뒤이어 왕릉과의 상호 위치를 알 수 있도록 사찰 또는 지명을 중심으로 한 방향을 기록했다. 다음은 장례가 끝난 후 일정한 기간이 흐른 뒤에 기록한 경우인데, 장례절차보다는 해당 지역에 있는 왕릉의 존재를 의식하고, 효소왕릉처럼 ‘陵在’ + 望德寺 + 東으로 기록한다.

위와 같이 관련 기사의 성격을 통해 기록된 시점을 고려해 볼 때, 『삼국사기』 신라본기는 전자의 형식을 취하고 있어 장례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을 기록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 즉, 이 같은 기록방법은 신라본기의 능묘관련 기사 모두를 마치 1차 자료인 것처럼 잘못 인식하도록 원인을 제공한다. 그러나 『삼국유사』 기이편은 후자의 형식을 갖추고 있어 후대의 기록인 2차 자료로 판단된다. 「표1」은 왕력에 등장하는 관련 기사를 정리한 것이다.

「표1」 『삼국유사』 왕력에서 확인되는 신라 왕의 장법·왕릉관련 기사

區 分		葬 法의 種 類 및 場 所	王 陵 의 位 置
時 期	代 王		
上古期	4	脫解尼叱今 王崩水葬於末○疏井丘中塑骨安東岳 今東岳大王	
	17	奈勿麻立干	陵在占星臺西南
中古期	23	法興王	陵在哀公寺北
	25	眞智王	陵在哀公寺北
中代	30	文武王	陵在感恩寺東海中
	32	孝昭王	陵在望德寺東
	33	聖德王	陵在東村南一云楊長谷
	34	孝成王	法流寺火葬散骨東海
	35	景德王	初葬頃只寺西岑鍊石爲陵後移葬楊長谷中
下代	38	元聖王	陵在鵠寺今崇福寺有也或遠所○碑
	41	憲德王	陵在泉林村北
	42	興德王	陵在安康北比火壤
	51	眞聖女王	火葬散骨于牟梁西岳一作未黃山
	52	孝恭王	火葬師子寺北骨藏于仇知堤東山脇
	53	神德王	火葬藏骨于箴峴南
	54	景明王	火葬皇福寺散骨于省等仍山西
	56	敬順王	陵○○東向洞

「표1」에서 확인되듯이 왕력은 신라본기에서 확인할 수 없었던 水葬·塑像·複葬(初葬·移葬)·散骨·藏骨 등 여러 종류의 葬法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있어 신라 왕실의 사후세계에 대한 인식을 엿볼 수 있다. 이처럼 신라왕들의 장례에 있어 장법의 차이가 의미하는 바는 향후 연구되어야할 과제로 생각된다. 그러면 왕력의 기록방법부터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왕력의 찬자에게 있어 화장의 경우는 전자의 형식을, 매장 경우는 후자의 형식을 취하고 있어 기록 방법에서 양자를 혼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개별 기사에 대한 사료 비판이 이루어진 후에야 정확한 실상이 드러나겠지만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왕력에 기록된 일부 왕릉관련 기사는 왕릉이 조영될 당시의 사실을 기록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우선 효성왕과 진성왕처럼 장법에서 화장 후 산골한 경우는 왕릉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장법과 장지를 기록해야 하는 특수한 성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火葬’ ○○○○이외는 달리 방법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장례절차가 진행되던 당대가 아닐 경우 화장 후 장골하여 왕릉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화장 후 왕릉을 조영한 문무왕에 대해서 ‘陵在感恩寺東海中’이라고 표기한 것처럼 화장이라는 장법의 표현을 생략하고 그 결과인 왕릉의 위치만을 기록하는 후자의 방법이 가능하다. 그런데 굳이 제52대 효공왕과 제53대 신덕왕처럼 화장이라는 장법을 명기한 후 ‘藏骨 ○○○○’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왕력 편찬과정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부분이라 하겠다. 즉, 왕력에 등장하는 일련의 사료는 편찬 당시 찬자에 의하여 정리된 획일적인 기록이 아니며, 기왕에 수집된 여러 갈래의 저본자료를 그대로 전재하였음을 의미한다. 나아가 왕력편찬에 이용된 저본자료들 가운데 화장 및 효공왕과 신덕왕의 능 위치관련 사료들은 왕력 편찬이 완성되는 14세기경에 와서 채록된 것이 아니라 기록된 시점이 통일신라 당대이거나 그로부터 멀지 않은 시기일 것이다.

다음은 왕력의 신라 왕릉관련 기사부분과 『삼국사기』 신라본기의 관련기록을 비교하였을 때 확인되는 특징이다. 첫째, 제23대 법흥왕, 제30대 문무왕, 제32대 효소왕, 제34대 효성왕을 제외하고는 제17대 내물왕릉처럼 새롭게 등장하거나 아니면 장법 또는 왕릉의 위치에 대해 다른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점이다. 특히 신라하대의 諸王에 대해 신라본기는 모두 왕릉을 조영한 것으로 기록한데 반해, 왕력은 제51대 진성여왕과 제54대 경명왕은 화장을 한 후 散骨한 것으로, 제52대 효공왕과 제53대 신덕왕은 화장 후 藏骨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산

골한 2왕은 왕릉의 존재 또한 의심하게 된다¹⁶⁾. 따라서 두 사서 중 어느 쪽 사료를 더 신뢰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개별사료와 현지에 남아 있는 왕릉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진전된 후에 판단되어질 것이다.

둘째, 왕력에서 신라의 56왕 가운데 17왕에 대한 관련 기록을 남기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왕력의 찬자는 왕의 장법과 왕릉의 위치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가졌던 것이 틀림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있어 上古期 22왕의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3성의 始祖陵에 대해서만 기록하고 있는데 반해¹⁷⁾, 왕력은 三姓始祖에 대해서는 유일하게 탈해왕릉 관련 기록과 신라본기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제17대 내물왕릉의 위치관련 기사만을 전하고 있다. 또한 왕력의 찬자는 역대왕에 대한 종합적인 사료를 갖지 못했던 관계로 中古期 이후부터는 제24대 진흥왕, 제26대 진평왕, 제27대 선덕왕, 제28대 진덕왕, 제29대 무열왕, 제31대 신문왕, 제43대 희강왕, 제45대 신무왕, 제46대 문성왕, 제47대 헌안왕, 제49대 헌강왕, 제50대 정강왕에 대해서는 관련기록을 남기지 못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진흥왕 및 무열왕과 같은 정치적 비중 또는 왕위계승에 있어 중요성이나, 통일기 왕릉의 봉분에 설치된 호석 및 능전의 석물배치로 인한 陵域의 화려함 등과는 전혀 관계없는 無作爲의인 기록을 남기고 있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왕력은 중고기 이후부터는 15왕에 한하여 부정기적으로 관련기사가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에 반해 신라본기는 왕력과 달리 중고기인 제22대 법흥왕 이후부터 반란 등의 정치적 사건에 연루된 5명의 왕을 제외하고는 34명의 왕에 대한 기록이 누락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1145년에 완성된 『삼국사기』보다 늦게 편찬된 왕력의 경우 고구려 능묘관련 기사가 확인되지 않는 점과 신라본기의 능묘관련 기사 가운데 일부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왕력의 찬자는 『삼국사기』의 고구려본기나 신라본기의 내용을 참조하지 않았으며 장법이나 왕릉

16) 강인구는 왕력의 편찬자가 일연이 아닐 가능성이 있지만 그 역시 佛僧임은 분명하다하여 기왕에 제시된 4명의 왕에 대해 葬法과 葬地, 왕릉의 위치 등에 대한 차이를 金富軾과 佛僧의 사생관 및 역사관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자 하였다 (강인구, 1987, 「신라왕릉의 재검토(3)」, 『삼국유사의 종합적 검토』, 한국정신문화연구원, 400~402쪽). 그는 저본으로한 典據 역시 달랐을 가능성을 추정하면서도 찬자의 修史態度가 더 중요한 것으로 보았다. 기사의 신빙성에 대해서는 왕력이 사실에 가깝다고 하였다. 그러나 왕력의 찬자를 佛僧으로 추정할만한 정확한 근거는 없다고 생각된다.

17) 이근직, 1986, 「신라 왕릉관계 기사의 검토」(삼국사기 초기기록을 중심으로), 『경주사학』 5집, 동국대 국사학회

의 위치관련 기사는 다른 성격의 자료에 의거해 편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특징으로 미루어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왕릉은 각자 시기를 달리하여 서로 다른 전승과정을 가진 자료에 입각하여 개별적으로 완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특정한 몇 왕의 경우 장법이나 왕릉의 위치관련 기록에서 서로 다른 내용이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이 점은 나아가 신라 통일기 및 고려전기에 이르러 신라왕릉에 관한 여러 갈래의 사료가 생성되었음을 의미한다.

3) 『삼국유사』 기이편

『삼국유사』 기이편에는 모두 30여명에 이르는 왕에 대해 관련 기록을 남기고 있으나, 그 가운데 왕릉 관련기사는 7왕에 불과하다. 즉 기이편의 찬자가 신라왕릉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 자료를 수집한 후 일률적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왕릉관련 기사의 유무와 관계없이 수집된 자료를 그대로 편집한 결과에 기인한다. 다음은 기이편에서 확인되는 신라왕릉 관계 기사이다.

- A. 各葬五體爲五陵亦名蛇陵曇巖寺北陵是也 (신라시조 혁거세왕조)
- B. ① 葬䟽川丘中…碎爲塑像安闕內…神又報云我骨置於東岳故令安之 (탈해왕조)
- ② 曰我是脫解也拔我骨於䟽川丘塑像安於土含山王從其言…卽東岳神也云 (탈해왕조)
- C. 在位二十三年而崩陵在興輪寺東…因號竹現陵 (미추왕 즉엽군조)
- D. 葬我於仞利天中…狼山南也…群臣葬於狼山之陽 (선덕왕지기삼사조)
- E. 葬於哀公寺東有碑(대종춘추공조)
- F. 大王御國二十一年…遺詔葬於東海中大巖上 (문호왕 법민조)
- G. 王之陵在吐舍岳西洞鵠寺(今崇福寺)有崔致遠撰碑 (원성대왕조)

먼저 위 사료의 찬술시기를 살펴보자. 위의 사료 중 A, C, G는 장지를 기록하지 않고 陵으로 표기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당대가 아닌 후대의 기록임을 알 수 있다. 즉, 통일신라 및 고려시대에 이르러 누군가가 직접 왕릉을 답사한 후 기록을 남겼는데, 그 자료가 13세기말에 와서 『삼국유사』의 편찬자들에 의해 수집된 후 재편집된 것으로 보여진다. 나머지 B, D, F는 葬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전체내용으로 보아 왕릉이 조영되던 시점과 가까운 시기에 생성

된 사료이며, 이를 수집한 『삼국유사』 편찬자들에게 의해 그대로 轉載되었을 가능성이 높다¹⁸⁾. 그런데 사료 E의 경우 분명한 판단을 내리기는 어렵지만 기록상에 있어 葬·寺名·방향표시의 방법을 취하고 있어 1차 사료의 성격이 강하다고 보여지나 有碑라는 표현으로 미루어 후대의 기록임을 알게 한다. 만일 당대의 기록이라면 ‘立碑·建碑·樹碑’ 등으로 표기하였을 것이다.

이로 미루어 보면 기이편의 사료군은 『삼국유사』가 완성될 당시인 13세기말 또는 14세기초의 고정된 시점이 아닌 신라 통일기부터 고려 중기에 이르는 다양한 시기의 신라왕릉에 관한 사료들로 평가된다. 그 가운데 고려시대 신라왕릉의 존재를 언급하고 있는 관련기사는 통일신라 이후의 전승과정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그 시기가 고려전기이기 때문에 능묘의 전승과정을 잃어버릴 단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해서 관련자료들을 신뢰해서는 안되며 마땅히 개별 사료에 대한 엄정한 비판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다음은 신라본기·왕력·기이편의 상호관련성에 관한 문제이다. 먼저 『삼국유사』 기이편에서 확인되는 7왕 가운데¹⁹⁾ 왕력 기록과 중복되는 경우는 탈해왕·문무왕·원성왕으로 3왕에 불과한데 그나마 3왕 관련 기사를 서로 비교하여 보면 비록 동일한 내용을 의미하지만 각기 다른 사료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삼국유사』 기이편에 관련기록이 남아 있는 미추왕과 태종무열왕은 신라사에 있어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왕력에서는 이들에 관한 기록이 누락되었으며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왕들은 장지 기록을 남기고 있다. 이로 미루어 보면 왕력의 찬자는 기이편과 같은 성격의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음을 알게 한다. 이 점은 나아가 왕력과 기이편의 편찬작업이 상호 유기적인 체계내에서 진행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아울러 『삼국유사』의 편찬자들은 『삼국사기』를 참고한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7왕에 대해서만 관련 기록을 남기고 있어 신라본기의 왕릉관계 기사가 참고자료로 활용되지 않았음을 알

18) 물론 통일신라시대의 저본이 『삼국유사』가 편찬될 당시까지 원본 그대로 전해져 왔을 가능성이 높지만 ‘文虎王法敏’條의 경우처럼 고려 惠宗의 諱인 武를 虎로 避諱代字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삼국유사』가 편집되기 이전의 고려시대에 撰述된 것이 분명하다. 이 점은 『삼국유사』의 편찬과정에 있어 사용된 저본의 내용을 가감없이 그대로 轉載하였다는 것이 확인되기 때문이다(이근직, 1997, 「삼국유사의 피휘례 연구」, 『삼국유사교감연구』, 신서원, 538쪽).

19) 강인구, 1987, 앞의 글, 393쪽에서는 춘추공조에 보이는 태종무열왕의 능에 대한 위치를 확인하지 못하여 『삼국유사』에서 확인이 가능한 왕은 6명이라고 하였으며, 김유신조에 보이는 묘의 위치에 기사를 왕력편의 기사로 잘못 편입시켜 놓았다.

게 한다.

따라서 왕력과 기이편의 각 항목은 통일신라이래 서로 다른 시기에 생성된 후 각자 전승되어 오다가 『삼국유사』가 완성되는 시기에 이르러 합본의 형태를 띠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²⁰⁾. 또한 왕력의 찬자가 이용할 수 있는 사료군은 매우 다양하였으나 온전한 모습을 갖추기에는 다소 한계성을 지닌 상태였으며, 그 결과 부정기적으로 누락된 부분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왕력의 찬자는 미추왕릉과 무열왕릉처럼 당시 경주지역에 전승되어 오던 왕릉에 대해 조사 및 답사를 하지 않았으며, 전적으로 수집된 저본자료에 의존하였음을 말해 준다. 이 점은 기이편의 편찬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두 사서에 기록된 신라 왕릉관련 내용들을 검토해 볼 때, 왕력의 사료적 성격은 고려정부에 의해 편찬된 『삼국사기』 신라본기와는 현저하게 다르다는 점이다²¹⁾. 일반적으로 『삼국사기』는 신라정부에 의해 편찬된 관찬성격의 자료들과 중국측 자료 및 일부 사찬의 자료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인데 반해, 왕력은 사찬성격이면서 민간전승의 경로를 밟고 있음이 확인된다²²⁾. 다만 왕력에서 확인되는 왕위계승 관련자료의 정확성이 오히려 『삼국사기』 신라본기의 왕위계승 자료보다 부분적으로 뛰어남을 고려할 때²³⁾, 왕력의 찬자가 참고한 원전자료의 일부는 『삼국사기』처럼 관찬자료 또는 왕실과 관련깊은 신라인에 의하여 기록된 자료를 이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즉, 두 사서 모두 당시에 전승하고 있던 여러 계통의 자료를 포함하고 있는 까닭에 일방적으로 두 사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자료를 획일적인 시각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료들을 필요에 따라서는 분리시켜서 개별 기사의 신뢰도를 검토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2. 왕력과 신라본기의 비교검토

따라서 지금부터는 왕력을 중심으로 『삼국사기』 신라본기와 『삼국유사』 기이편을 비교함으로써 장법 및 왕릉관련 사료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의 중요성은

20) 김상현, 1985, 「삼국유사 왕력편 검토」, 『동양학』15집,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236~237쪽

21) 이근직, 1998, 「삼국유사 왕력의 편찬시기」, 『한국사연구』 101호, 한국사연구회

22) 이기동, 1984, 「신라 내물왕계의 혈연의식」, 『신라골품제사회와 화랑도』, 일조각, 66쪽

특히 장법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신라하대 4왕에 대해서 관련사료의 성격을 분명히 함으로써 왕릉의 '存在有無'를 밝힐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러한 판단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문헌자료를 비교 검토한 결과 『삼국사기』 신라본기·『삼국유사』 왕력과 기이편의 장법 및 왕릉관련 기록이 각기 서로 다른 전거에 의존하여 편찬되었으며, 개별 기사 모두 사료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었다. 그러면 과연 신라본기·왕력·기이편의 왕릉관련 기사 가운데 어느 사료가 두 사서의 편찬시기와 관계없이 가장 이른 시기의 것으로써 당대의 사실을 정확하게 전해 주는지 규명하여야 한다.

1) 장법관련 기사 검토

장법과 관련하여 왕력에는 水葬과 火葬 그리고 이를 시행한 場所에 관해서 모두 7왕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있는데(표1 참조), 신라본기 및 기이편의 기록과 내용상 일치하는 왕은 제4대 탈해왕과 제34대 효성왕뿐이다. 나머지 다섯 왕 가운데 제35대 경덕왕의 경우 왕력은 '初葬 후 楊長谷으로 移葬'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신라본기는 '毛祗寺西岑'에 왕릉을 조영한 것으로 되어 있어 서로 다른 성격의 자료로 판단된다. 그리고 신라 하대 네 왕의 경우, 신라본기에는 왕릉의 조영을 통해 매장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왕력은 화장한 후 산골 또는 장골하였다고 하는 상반되는 기록을 남기고 있다.

따라서 두 사서에 기록된 관련 기사들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삼국사기』 및 왕력을 편찬할 당시에 참고하였던 저본 자료의 성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²³⁾. 또한 이러한 확인과정을 통해 어느 사료가 더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다.

23) 물론 김부식 등의 편찬자는 『삼국사기』를 편찬할 당시 직접 고구려와 신라의 옛 왕경지역에 전해오던 여러 왕릉을 현지 답사한 후 기록한 것이 아니며 기왕에 통일신라 이래 전해오던 葬地관련 사료를 종합한 것이며(이근직, 1986, 「신라왕릉 관계기사의 검토」(삼국사기 초기기록을 중심으로), 『경주사학』5집, 동국대 국사학회, 107~108쪽) 내용 또한 저본 자료를 종합하거나 충실히 전재하였으며, 의도적인 改書는 없었다(정구복, 1996, 「解題」, 『역주삼국사기(1)』(교감원문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표2」 왕력과 신라본기의 장법관련 기사 비교

區 分		王 曆	新 羅 本 紀
時 代	代 王		
中 代	35 景 德 王	初葬頃只寺西峯 鍊石爲陵後移葬楊長谷中	葬毛祇寺西峯
下 代	51 眞 聖 女 王	火葬 散骨于牟梁西岳 一作未黃山	葬于黃山
	52 孝 恭 王	火葬師子寺北 骨藏于仇知堤東山脇	葬于師子寺北
	53 神 德 王	火葬 藏骨于箴峴南	葬于竹城
	54 景 明 王	火葬皇福寺 散骨于省等仍山西	葬于皇福寺北

「표2」에서 확인되는 두 사서의 중요한 특징은, 왕력에서 화장 장소 또는 산골 장소로 기록된 곳을 신라본기에서는 왕릉이 조영되어 있는 장소처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장법 면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써 어느 기록을 취신하느냐에 따라서 왕릉의 존재유무를 결정짓는 것이 되므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처럼 서로 다른 기록의 양상은 두 사서의 편찬시기와 보다 근접된 신라 하대의 왕릉에 관한 기록조차도 완전하지 못하고 사실과 다른 여러 갈래의 전승과정을 갖고 있음을 알게 한다. 따라서 중대 또는 상대로 시기가 올라갈수록 관련사료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다음은 위 「표2」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결과이다.

첫째, 경덕왕은 頃과 毛, 只와 祇의 차이만 없으면 표기방법과 내용이 동일한 것 같이 보인다. 그러나 신라본기는 왕릉의 축조가 완성된 후 시신을 석실 가운데 안치하는 순서를 밟은 것으로서 1차장인 단순장의 형식이며, 왕력은 初葬後 석재를 다듬어 왕릉을 축조하여(鍊石爲陵) 移葬하는 二次葬인 複葬의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신라본기는 왕력에서 初葬의 장소라고 명기한 모지사(모지사의 서쪽 언덕)에 왕릉이 존재하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즉, 모지사라는 사찰이름과 방향 그리고 언덕(峯)이라는 표현이 동일하게 표기된 점으로 미루어 저본의 계통은 같은 사료로 추정된다. 즉, 서로 다른 찬자가 경덕왕의 장례절차에 대해 비슷한 상황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구체적으로는 전혀 다른 기록을 남기고 있다.

다만 왕력의 ‘鍊石爲陵’이라는 표현은 경주지역 왕릉의 호석 발달과정을 살펴보면, 이전의 왕릉에 비해 처음으로 가공한 面石과 護石을 이용하여 왕릉을 축조한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왕릉의 위치를 楊長谷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鍊石爲陵’과 ‘楊長谷’의 조건을 갖춘 왕릉은 경주시 조양동 소재의 제33대 성덕왕릉이다. 이 경우 조양동일원에는 성덕왕과 경덕왕의 능으로 추정할 수 있는 2기의 왕릉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왕력의 기록은 경덕왕의 장지와 제34대

효성왕 재위시 '鍊石爲陵' 하여 성덕왕릉을 조영하던 장례절차에 대한 기록이 후대에 와서 혼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문제는 '연석위릉' 한 것이 효성왕대가 아니며 마치 경덕왕대의 사실인양 기록된 점이다. 그것은 성덕왕릉이 형제로 나란히 왕위에 오른 효성왕과 경덕왕 2대에 걸쳐 완성되면서 불러일으킨 오해이다. 즉, 효성왕대는 면석과 탕석으로 호석을 마련한 뒤 삼각형 지석을 설치하는 것으로 성덕왕릉이 마무리되었으나, 효성왕 사후 경덕왕은 부왕인 성덕왕을 위하여 효성왕이 조영한 왕릉에다 추가로 십이지상·난간·사자상·석인상·귀부 등 여러 가지 석물을 추가로 배치한다²⁴⁾. 따라서 성덕왕릉 조영과 성덕왕 능역에 추가로 설치된 석물들에 대한 공정과정이 효성왕대와 경덕왕대가 아닌 경덕왕릉을 마련할 당시에 있었던 것처럼 와전됨과 동시에 후대로 내려올수록 경덕왕의 장지가 덧붙여지면서 혼란을 일으킨 것이 아닌가 한다. 즉, 왕력의 경덕왕릉 관련기사는 그대로 신뢰할 바가 못되며 신라 왕릉의 발달과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좀더 정밀한 사료비판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頃只寺와 毛只寺에 대해서는 撰者가 직접 경주를 답사한 후에 남긴 기록으로 추정되는 자료에 毛只寺의 존재가 보인다²⁵⁾. 따라서 毛只寺가 맞으며 頃只寺의 頃은 권상로의 지적과 같은 변화 양상을 거쳤거나²⁶⁾ 왕력 편찬시 이미 저본으로 한 사료의 難識으로 인하여 誤

24) 강우방, 1990, 「신라 십이지상의 분석과 해석」, 『원융과 조화』, 열화당, 322~323쪽

25) 至五十四景明王追封公爲興虎大王 陵在西山毛只寺之北東向走峰(『삼국유사』 기이편, 김유신조) 위 기록의 찬자는 비록 제42대 興德王時에 興武大王으로 追封된 史實을 제54대 景明王으로 誤認하고 있지만 陵의 위치에 관한 내용은 현장에 대한 이해없이 남길 수 없는 사실적인 기록임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毛只寺는 고려중기까지 존재하였으며 그 史實이 『삼국유사』 김유신조에 전제된 원전자료의 찬자에 의해 기록되어진 것이다. 결과적으로 毛只寺의 존재로 인해 전김유신묘는 제35대 景德王陵일 가능성이 높다. 다만 毛只寺로부터 陵이 존재하는 방향이 문제인데 西峯과 北의 차이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는 것이다. 또한 현재 경주지역에서 확인 가능한 왕릉 가운데 '東向走峰'에 필적할만한 왕릉이 없음은 물론이요, 찬자가 정확하게 '西山'이라고 표기하였음은 전김유신묘의 위치가 분명하며, 西山은 당시의 山名이 부정확함에도 원인이 있는 것으로서 오늘날과 같이 松花山이 아니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혹자는 경덕왕의 경우 왕력의 '後移葬楊長谷中'에 근거하여 양장곡을 현재 경주 남산 동록에 있는 화랑교육원과 통일전 사이의 남산동으로 비정하여 전정강왕릉을 성덕왕릉으로, 전현강왕릉을 경덕왕릉으로 추정하고 있다(강인구, 1987, 앞의 글, 380쪽). 그러나 양장곡이 성덕왕과 경덕왕조에 같이 보이는 점과 현지의 여건을 고려한 결과 경덕왕조에 보이는 관련기사는 부왕인 성덕왕릉에서부터 처음으로 鍊石한 것이 확인되고 있어 그의 아들인 경덕왕이 부왕의 능에 대해 꾸준히 추가로 석물을 설치한(강우방, 1973, 「신라십이지신상의 분석과 해석」, 『불교미술』1집, 동국대학교 박물관) 일련의 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26) 權相老, 1994, 「頃只寺」「毛只寺」, 『韓國寺刹全書』(上), 退耕堂權相老博士全書刊行委員會, 101쪽, 551쪽에서 '頃字似是項字之誤 項字之訓爲「목」則與毛字之音相近 以是致誤也'라 하여 '頃'이 '項'의 誤字임과 '項'과 '毛'가 동일한 의미라고 해석하였다. '只'와 '祇' 역시 訓과 音에서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다.

認 또는 誤刻했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신라본기에는 하대 네 왕의 능에 대해서 景德王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왕력과 비교됨 남아 있다. 즉 왕력에 의거할 경우 진성여왕은 散骨 장소인 黃山에, 효공왕은 火葬한 장소인 師子寺에, 신덕왕은 장골한 箴岫과 동일한 지명으로 추정되는 竹城에, 경명왕은 화장한 장소인 皇福寺 북쪽에 각각 왕릉이 위치하는 것처럼 기록하고 있다. 즉, 신라본기는 장법면에서, 왕력에서 화장하였다고 기록한 네 왕 모두 왕릉을 조영한 후 매장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다만 효공왕과 신덕왕에 대해서는 왕력의 화장 후 장골한 장소와 신라본기에서 명기된 장지는 상반되고 있지만, 장골한 경우로 원성왕릉처럼 화장 후 왕릉이 축조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위와 같이 某王의 왕릉유무에 대해서 두 사서의 관련 기록이 갖고 있는 결과적 의미는 비록 다를지라도 火葬場所 또는 장지에 대해 동일한 사찰명 또는 지명이 등장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위 기록들은 분명 해당 왕의 장례와 관련된 정보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사료 그 자체에 대한 비판만으로는 관련기록의 진위를 구별하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관련 기록들이 말하는 바의 현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제54대 경명왕릉은 좋은 예이다.

신라본기에서 경주시 배반동에 있는 狼山の 북단 동쪽에 위치한 皇福寺址 북쪽에 있다고 기록한 경명왕릉의 경우, 현재로서는 왕릉이 확인되지 않는다²⁷⁾. 황복사 위치의 정확성은 寺址에서 ‘王福’ 또는 ‘皇福’이라는 명문와가 발견되었으며²⁸⁾, 寺域内の 삼층석탑에서 1943년 출토된 사리함의 명문이²⁹⁾ 증명하고 있다. 따라서 경명왕릉은 조영되었다기 보다 황복사에서 화장 후 산골하였다는 왕력의 기록이 더 정확할 가능성이 크다³⁰⁾. 이로 미루어보면 『삼국사

27) 현재 황복사의 북쪽인 동천동 일원에는 피장자가 확실한 헌덕왕릉과 조선말기에 탈해왕릉으로 지정된 석실분 1기가 있을 뿐이다. 혹 경명왕의 경우 화장 후에 조성된 왕릉이므로 그 규모가 문제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전탈해왕릉을 경명왕릉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만일 탈해왕릉이 경명왕릉이라면 왕릉의 위치를 기록하는데 북천너머 남쪽 원거리의 황복사보다는 금강산 또는 주변의 사찰로 기준을 정하였을 것이다.

28) 장충식, 1985, 『신라남산유적조사』(고적조사보고제1책),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박물관, 81~82쪽

29) 이흥직, 1954, 「경주 낭산동록 삼층석탑내 발견품」, 『한국고문화논고』, 을유문화사 ; 梅原末治, 1960, 「韓國慶州皇福寺塔發見の舍利容器」, 『美術研究』156, 일본 ; 정병삼, 1992, 「황복사 금동사리함기」, 『역주한국고대금석문』,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30) 현재 南山西麓의 三陵內에 가장 남쪽에 위치한 전경명왕릉은 조선 영조 6년인 1730년에 경주박씨 문중에서 처음으로 전칭왕릉이 아닌 무명의 고분을 새로이 지정한 결과이다. 이의 잘못 비정됨은 이미 지적된 바 있다(강인구, 1984, 「신라왕릉의 재검토(1)」(유화계의 나릉진안설과 관련하여), 『동방학지』41집, 연세대 국학연구소, 72~76쪽)

기』 신라본기의 저본 자료로 사용된 원전은 이미 부분적이기는 하나 역사적 사실이 와전되어 있었거나 사료의 원형을 잃어버렸을 가능성마저도 배제하기 힘들다. 나아가 이 점은 『삼국사기』 저본 자료의 성격이 신라하대일지라도 모두 당대의 정확한 사실을 기록한 정사류의 계통이 아닌, 즉 사료의 신뢰성이 다소 떨어지는 私撰史書도 포함되어 있었음을 시사한다.

결과적으로 장지 및 왕릉의 위치관련 기사부분은 두 사서가 어느 정도 동일한 장소를 전하고 있으나 장법에서 만큼은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저본으로 한 사료군이 각기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장지 및 왕릉의 위치에 대해서 동일한 장소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사료의 객관적인 신뢰를 높이는 결과를 갖는다. 이 점은 장지 또는 왕릉이 있다고 하는 지명 또는 사찰에 대해 정확한 고증만 가능하다면 기록된 방향을 기준으로 왕릉의 존재유무를 확인할 수 있으며, 현장조사의 결과로 미루어 산골 또는 장골인지를 밝혀낼 수 있게 된다. 즉, 4왕처럼 장법이 양분될 경우 기록된 지명 또는 사찰에 대한 정확한 고증과 함께 현장 조사를 병행하여야 한다.

2) 왕릉의 위치관련 기사 검토

왕릉의 위치와 관련해 왕력에는 모두 10왕에 대한 기록을 남겼는데, 그 가운데 제23대 범흥왕·제30대 문무왕·제32대 효소왕·제41대 헌덕왕은 신라본기와 일치하나 제17대 내물왕, 제25대 진지왕, 제33대 성덕왕, 제38대 원성왕, 제42대 흥덕왕의 기록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를 정리하면 「표3」과 같다.

「표3」 왕력과 신라본기의 왕릉위치 관련기사 비교

區		分	王 曆	新 羅 本 紀
時 期	代	王		
上古期	17	奈勿麻立干	陵在占星臺西南	
中古期	25	眞 智 王	陵在哀公寺北	葬於永敬寺北
中 代	33	聖 德 王	陵在東村南一云楊長谷	葬移車寺南
	38	元 聖 王	陵在鵠寺今崇福寺有也或遠所○立碑	以遺命舉柩燒於奉德寺南
	42	興 德 王	陵在安康北比火壤	朝廷以遺言合葬章和王妃之陵
	56	敬 順 王	陵○○○東向洞	

첫째, 내물왕의 ‘古星臺西南’은 기록의 성격으로 보아 경주지역을 직접 답사한 자가 기록한 사료를 왕력의 찬자가 참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 반면 신라본기는 내물왕의 장지에 대해 아무런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 다만 신라본기와 기이편에 보이지 않으므로 兩書가 참조하지 못한 사료를 갖고 있었거나 아니면 후대의 필요에 의해 피장자에 대한 전승과정의 없던 古墳 가운데 1기를 왕릉으로 지정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추정에는 첨성대 서남쪽에 위치한 고분군 가운데 5세기 전반의 내물왕릉으로 비정할만한 고분이 없는 상황을 고려하면 가능성이 높다.

현재 계림북쪽에서 계림의 내부로 연결되고 있는 28호분·29호분·30호분(전내물왕릉)은 모두 봉분의 규모나 자연석을 호석에 기대어 놓은 것으로 보아 내물왕의 사망시기인 401년보다 2세기 이상 늦은 시기인 7세기 중엽에 축조된 석실분으로 추정되고 있다³¹⁾. 또한 고고학계에서는 왕력의 내물왕릉 관련기사와는 상관없이 98호분인 황남대총을 내물왕릉으로 추정하려는 시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³²⁾. 그러나 한편으로는 왕력의 기사를 신뢰하면서 전내물왕릉(30호분)의 묘제가 5세기 전반의 적석목곽분이 아닌 횡혈식석실분이라는 것과 조영시기가 7세기 중엽이라는 견해를 받아들여 이와 인접하고 있는 118호분·119호분 가운데 119호분을 내물왕릉으로 보려는 시도가 최근 있었다³³⁾.

그런데 교동일대의 고분군은 규모와 밀집도 그리고 집단묘역인 황남동고분군·노동동고분군·노서동고분군·황오동고분군 등과의 거리를 고려할 때 적석목곽분이 조성되던 시기 가운데 소멸기인 6세기 전반의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119호분의 경우 비록 규모는 장대하지만 교동고분군 속에 포함되고 있어 내물왕릉이 조영된 5세기 전반과는 시기적으로 일정한 거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³⁴⁾. 따라서 왕력의 내물왕릉 관련기사는 5세기의 상황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이 지난 뒤 후대인의 필요에 의해서 왕궁이었던 월성과 인접한 위치에 내

31) 윤경렬, 1971, 『新羅王陵이야기』, 어린이향토학교교재, 신라문화동인회, 45~46쪽

32) 이희준, 1995, 「경주 皇南大塚의 연대」, 『영남고고학』 17집, 영남고고학회 ; 이종선, 1996, 「皇南大塚雙墳」, 『신라고고학의 제문제』, 한국고고학회

33) 고고학계 일부에서는 『삼국유사』 왕력의 기사와 고분의 장대함을 근거로 하여 119호분을 내물왕릉으로 비정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김용성, 1996, 「토기에 의한 대구·경산지역 고분분묘의 편년」, 『한국고고학보』 35집, 한국고고학회, 119~121쪽 ; 함순섭, 1996, 「대구 달성고분군에 대한 소고」, 『석오윤용진교수정년퇴임기념논총』, 경북대 논총간행위원회, 371~372쪽). 특히 118호분보다 119호분에 주목하는 것은 단순히 내물왕이 차지하는 정치적 비중의 큼과 고분의 장대함을 일치시키려는 단순논리에 의존한 것이며, 더우기 『삼국유사』 왕력의 내물왕릉 관련기사의 신뢰도에 관해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

34) 이근직, 1999, 「경주지역 신라문화의 성립과 전승과정연구」, 『한국문화논집』 창간호, 부산전문대학 한국문화연구소, 12~21쪽

물왕릉이 있을 것이라는 가정과 함께 그가 김씨로써 미추왕 다음으로 왕위에 올랐다는 점 등이 고려되어 ‘占星臺西南’이라는 기록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내물왕릉 관련기사는 당대의 자료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

둘째, 진지왕릉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기록을 남겼는데, 각각 애공사와 영경사의 북쪽에 왕릉이 있다고 하였다. 이를 평면적으로 받아들일 경우 왕릉을 기준으로 같은 위치에 존재하는 애공사와 영경사는 동일한 사찰로 생각된다. 그러나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먼저 寺名이 서로 다른 시기의 것일 가능성이 있다. 즉 동일한 사찰이나 창건 후 어느 시기에 이르러 사명을 개명한 경우이다. 다음은 어느 한쪽이 잘못된 경우이다. 그런데 신라본기에서 법흥왕과 진흥왕의 장지를 언급하면서 애공사를, 진지왕과 무열왕의 장지를 영경사를 기준으로 기록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전자의 가능성은 일단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후자일 가능성이 높다. 다만 어느 기록이 더 신뢰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이 경우 두 사료는 대립되는 경우로 이들 왕릉이 있는 곳으로 추정되는 선도산 동쪽의 왕릉분포와 寺址와의 방향 등을 고려하여 고증한 뒤 선택하여야 한다.

셋째, 성덕왕릉의 위치에 대해서는 왕력이 ‘東村南’과 ‘楊長谷’으로, 신라본기는 사찰인 ‘移車寺’를 기준으로 관련기록을 남기고 있어 사료의 구분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들 자료는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전성덕왕릉의 북쪽 도지동에 移車寺로 추정되는 寺址가 8세기 중엽의 廢塔材와 함께 남아 있어 상호보완의 입장에 있다. 같은 예로, 원성왕에 대해서 신라본기는 봉덕사 남쪽에서 화장한 사실만 기록하고 화장 후 산골 및 장골여부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그런데 왕력과 기이편에서 “원성왕릉은 鶴寺에 있으며, 인접한 승복사에는 최치원이 찬한 비가 있다”고 하였다. 이 사료의 최초 기록자는 원성왕릉과 승복사를 방문한 후에 관련기록을 남겼을 것이다. 따라서 두 기록은 상호보완적인 위치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문무왕릉처럼 화장 후에도 산골이 아닌 경우에는 여전히 왕릉이 조영됨을 알 수 있다³⁵⁾.

흥덕왕릉의 경우도 같다. 신라본기에서는 “장화왕비와 합장하라”는 유언을 하고 있으므로

35) 신라시대 4왕뿐만 아니라 신라인들이 불교식 장법인 화장을 택한 이유에 대해 연구자들은 “肉脫을 목적으로 하였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확인된 문헌·비문·고고학적 자료들을 검토할 경우 승려를 포함한 신라인들을 대부분은 화장보다는 매장을 선호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불교교리에 입각한 사상적 배경보다는 육탈기간의 단축이라는 기능적인 측면이 화장을 수용한 원인이라는 견해가 맞다면 불교와 더불어 전래된 화장문화는 전통적인 매장을 고집하던 비불교도를 비롯한 대부분의 신라인들은 화장을 택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이다. 따라서 화장을 한 받아들인 원인은 달리 있으며, 매장을 선호하던 습속은 화장 후에도 여전히 능력을 마련한 뒤 장골하는 것으로 남게된다.

왕릉의 존재를 생각할 수는 있지만 위치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왕력은 “왕릉은 安康 북쪽 比火壤에 있다”라고 하였다. 즉, 흥덕왕릉에 관한 자료의 성격은 신라본기가 유언을 통한 장화 왕비와 합장이라는 형식을 정확히 기록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당대 기록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에 비해 왕력은 왕릉이 조성된 후에 이들 지역을 답사한 자에 의해 남겨진 2차 자료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신라본기와 왕력은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의 성격을 지닌다.

결과적으로 사후에 진행되는 장법 및 왕릉의 위치에 관한 기사는 『삼국사기』 신라본기와 『삼국유사』 왕력이 대립되는 경우와 상호 보완되어야 하는 양측면의 성격을 모두 공유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장법에서 차이를 보이는 제51대, 제52대, 제53대, 제54대의 왕에 관한 기사에 대해, 왕력은 당대 사료의 성격이 짙은데 반해 신라본기는 이미 사료의 원형을 잃어버린 2차 사료를 저본으로 한 3차 사료로서 사실을 잘못 전하고 있다. 따라서 진성여왕·효공왕·신덕왕·경명왕의 장법은 신라본기의 내용처럼 매장이 아니라 왕력에서 기록하고 있는 화장일 가능성이 높으며, 그 가운데 효공왕과 신덕왕의 경우는 장골하였다는 기록으로 미루어 왕릉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명에 대한 연구와 현장조사를 병행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제33대 성덕왕릉·제38대 원성왕릉·제42대 흥덕왕릉의 경우 신라본기의 편찬자들이 미처 입수하지 못한 사료를 왕력의 찬자는 참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리고 이들 자료는 상호보완적인 측면에서 활용되어야 할 것임을 알 수 있다.

Ⅲ. 맺음말

지금까지 『삼국사기』 신라본기 및 『삼국유사』의 왕력과 기이편에 전해오는 신라시대 왕들의 장지 및 왕릉의 소재와 관련된 기사를 사료성격 규명이라는 측면에서 비교·검토하였다. 그 결과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신라본기는 왕이 사망할 당시 장례절차를 직접 지켜본 자의 기록처럼 葬於+地名 또는 寺名+方向이라는 방법을 택하고 있으나, 기이편은 陵在+地名 또는 寺名+方向이라는 기록 방법을 택하고 있어 장례가 끝난 뒤, 즉 일정기간이 흐른 뒤 장례절차보다는 왕릉의 위치를 의식하며 기록한 것으로서 후대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한편 왕력은 두 가지 방법을 혼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신라본기의 모든 능묘관련 기사가 신뢰할 수 있는 당대의 기록은 아니었으며,

왕력과 기이편의 관련기사 또한 신라본기에 비해 사료적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아니었다.

둘째, 고려 인종 23년(1145)에 편찬된 『삼국사기』의 능묘관련 기사를 왕력과 기이편은 전혀 참조하지 않았으며, 나아가 『삼국유사』 내의 왕력과 기이편조차 상호 유기적인 체계내에서 능묘관련 기사를 남긴 것이 아니라, 각각 별개의 자료에 의거하여 독자적으로 완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이들 능묘관련 기사는 동일한 경우와 서로 대립되는 경우 그리고 전혀 다른 내용으로 기록되었으나 상호보완적인 경우 등으로 나타난다. 즉, 제17대 내물왕릉에 관한 기록은 왕력만이 갖고 있으며, 제33대 성덕왕릉·제38대 원성왕릉·제42대 흥덕왕릉처럼 신라본기와 왕력이 상호 보완되거나, 신라하대의 제51대 진성여왕·제52대 효공왕릉·제53대 신덕왕릉·제54대 경명왕릉처럼 장법에서 신라본기와 왕력이 대립현상을 보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어느 특정 자료를 선택하고 나머지 관련자료는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일방적인 판단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과 능묘관련 기사들은 엄정한 사료비판을 거쳐야 함을 알 수 있다. 그 점은 능묘발달과정 및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편찬과정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즉, '신라능묘제도연구'를 가능케 하는 선행조건으로서의 전칭능묘에 대한 피장자 비정 문제는 능묘제도의 발달과정 및 왕릉주변 유적들에 대한 고고학적 연구결과를 토대로 문헌에 등장하는 관련 기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mination of Records related with Silla(新羅) Dynasty's Royal Tombs(2)

Lee, Keun-Jik

This report tried to find the characters of the historical records about the kings' tombs of Shilla on Samgook-Sagi(chapter of Shilla) and Samgook-Yousa(chapter of Shilla Dynasty and strange things). As the result, Samgook-Sagi is the direct form of the description as historical records because of being written under the sense of those days and Samgook-Yousa is the indirect form of the description because of being written after the historical events happened, not in those days. So, in the viewpoint of recording the history, it is inconsistent the time when these two books described the historical events. Therefore, in this case, we could think that Samgook-Sagi is more reliable than Samgook-Yousa as the historical records, but actually not. Also they are not based on the same data, so they seem to be the same meaning, but finally not. For example, in the descriptions of King Gyoung-Myoung's tomb, Samgook-Yousa is more reliable than Samgook-Sagi as the value of the historical records. Therefore, when we study a historical event, a one sided view(or angle) is not desirable and the descriptions of the event should be criticized strictly before being quoted. To study the progress of the successive kings' tombs(or remains surrounded the sites), that is, in need of archeological consideration of the sites and comprehensive consideration to understand the processes of compiling Samgook-Sagi and Samgook-Yousa.